

만날 웃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늙은이가 젊어지고 영원무궁도록 살 수 있어

6면에 이어서

위장은 미세혈관을 통해 공급되는 혈액의 힘으로 운동하며 위액을 분비합니다. 그러나 혈관이 막히면 위장이 움직이지 못하고 비틀리게 되며, 이 과정에서 극심한 복통이 발생합니다.

체한 환자의 손발 끝(사관)을 침으로 찌르면 검붉은 빛의 썩은 피가 배출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과학적 원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혈관이 막힌 부위는 일종의 진공 상태가 형성됩니다. 이때 침을 놓아 통로를 열어주면, 심장의 펌프 작용에 의한 압력으로 인해 막혀 있던 썩은 피가 터져 나옵니다. 이렇게 막혔던 혈관이 뚫리게 되니까 위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며, 트림과 함께 소화 작용이 정상화되고 통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현대 의학은 이러한 생명의 근본 원리와 영적인 인과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치중하는 기준의 학문적 토대는 인간의 생로병사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세상에 학문이 없다고 합니다.

11. 죽을 수 없는 체질을 가진 사람이 죽는 이유와 저항력을 가진 T임파구

인체의 세밀한 메커니즘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의 신만이 알 수 있는 신성한 지혜에 속하는 일입니다. 본래 인간의 신체 구조는 죽으려야 죽을 수 없는 그러한 체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세포학자 루누스 박사 역시 “인체는 본래 죽을 수 없는 존재인데, 왜 죽음에 이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언급하며 인체의 경이로운 생존 잠재력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 루누스 박사가 한 가지 만 알았지, 두 가지는 모른 것입니다. 피가 썩는 것을 몰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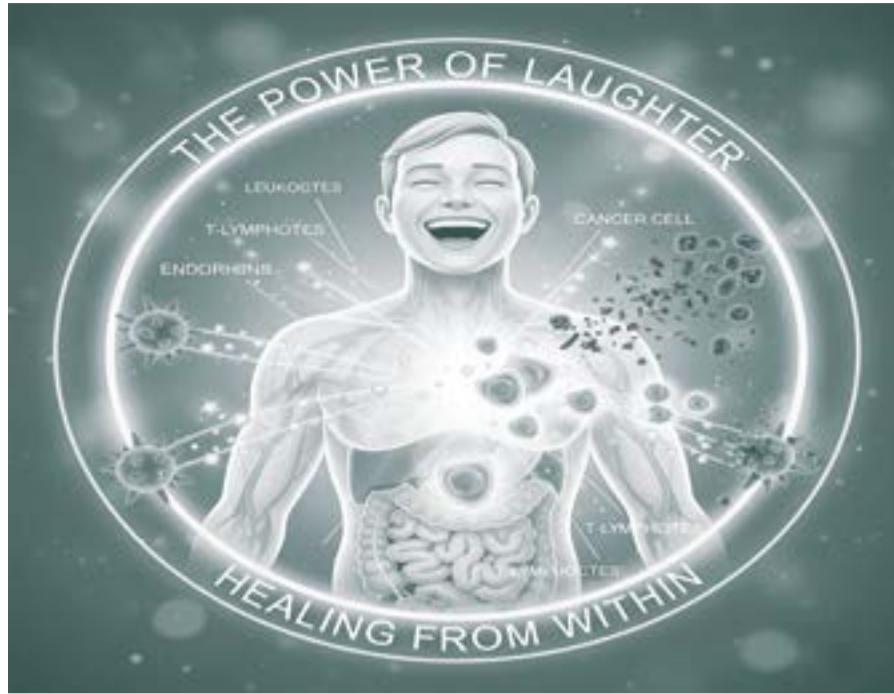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피의 썩음(혈액의 부

폐)’에 있습니다. 인체 노화와 사망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체는 끊임없이 사멸하는 세포를 새로운 세포로 대체하며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혈액이 부패하면 정상적인 세포 재생에 차질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혈액의 10%가 부패하면, 사멸한 100개의 세포를 대체하기 위한 깨끗한 피가 부족해져 90개의 세포만 재생됩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세포 미달 현상’이 누적되면서 피부가 탄력을 잃고 주름이 생기며 신체가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즉, 노화는 단순한 세월의 흐름이 아니라 ‘세포 조성의 결손(세포 미달현상)’에서 비롯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이 먹어서 늙는 게 아닙니다. 피가 썩어서 늙는 것입니다.

세포 미달현상은 뼈조직에서 명확히 나타납니다. 젊은이의 뼈는 세포가 밀도 있게 차 있어 단단하지만, 노인의 뼈는 세포 재생이 원활하지 못해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속이 비게 됩니다. 노인이 가벼운 낙상에도 쉽게 골절상을 입는 이유는 뼈세포 미달로 인해 골격 구조가 취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썩은 피가 많아지게 되면 저항력이 약화됩니다. 사람 피 속 백혈구 속에 T임파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웃으면 체내의 백혈구에서 엔돌핀이 생성되며, 엔돌핀은 면역 세포인 T임파구를 조성합니다. 활성화된 T임파구는 병균을 죽이고 암세포의 확산을 막아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하게 합니다. 사람이 항상 웃으면 암병이 안 걸리고 항상 웃으면 암병도 낫습니다. 이런 것을 의사들도 모르고



과학적 근거: 웃음은 T세포·NK세포 등 항체를 분비하고 엔도르핀 등 21가지 래감 호르몬을 생성해 정서 안정과 면역 강화에 기여한다

이 세상 사람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날 웃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늙은이가 젊어지고 영원무궁도록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희망이 있어야 웃는 것이지, 영생의 희망이 없으면 웃음이 나올까? 웃음이 안 나옵니다. 근심 걱정만 만날 하기 때문에 피가 자꾸 썩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승리제단 나오면 계속해서 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알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알아야 천당도 가고 알아야 영생도 하는 것입니다. 무식한 자는 못 갑니다. 모르면 못 갑니다. 하늘나라 천당이 아무리 좋아도 천당 가는 방법을 모르면 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구원론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고 쓰여 있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다는 것은 현재 마귀 옥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마귀를 이겨야 마귀를 죽일 수 있게 되어 마귀 옥에서 석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마귀를 죽여야 하나님의 주인공인 마귀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어야 사람이 하나님으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12. 인류 바극의 시작: 선악과(=마귀 영)의 점령설

성경에 기록된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건은 실제 과일을 입으로 먹은 것이 아니라, 눈을 통해 마귀의 영이 들어온 영적 사건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해와의 주체 영은 하나님(빛)이었으나, 하나님의 형상을 모방하여 나타난 마귀(선악과)를 쳐다보는 순간 마귀의 영이 침투해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 마귀의 영은 아담·해와 내면의 주체 영이었던 하나님을 사로잡아 ‘마귀 옥’에 가두고 스스로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 아담·해와는 하나님(신)에서 사람(마귀 형상)으로 전락했으며, 이때부터 남자와 여자가 나뉘는 ‘음양(태극)의 세계’가 형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세계

는 극이 없는 ‘무극경지’였으나, 마귀가 지배하면서 암수로 나뉘고 생식과 죽음이 반복되는 마귀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사람을 하나님 형상을 입었다고 그러죠? 이건 잘못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 형상을 입은 것입니다. 마귀의 영을 마음으로 말미암아 마귀 영이 ‘나’라는 주체의식이 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마귀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둘에 맞아 죽을 일이지만, 그러나 사실을 말하는 건데 거짓말이 아니잖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자식들을 전부 전멸시키려고 마귀대장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전부 전멸시키려면 예수를 믿어야 전멸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서 영혼이 천당 간다고 그러는데, 영이라는 건 마음이 영이라고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영이고 영 자체가 생명입니다. 생명이 피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마귀가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생명이 죽는다는 것은 곧 영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영이 생명이요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13. 조상의 내세가 곧 후손의 연세

인간이 현재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양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근본이 하나님과의 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했고 ‘피가 생명’이라 한 것은, 우리 혈액 속에 하나님의 영(선한 영=양심)이 들어있음을 의미합니다.

죽은 사람의 영은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손의 피 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8면에 계속

이루고 있으므로, 내 속에 조상의 영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내세가 곧 후손의 현세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빛의 신이었습니다. 우리 몸의 생명력이 곧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빛이며, 이것이 있기에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 몸에서 ‘오오라(Aura)’와 같은 빛을 방출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 내가 행하면 다 죄가 됩니다

우리는 믿을 바에는 성경적으로 믿거나 불경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나님처럼 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는 신입니다. 죄가 ‘나’라는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중심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는 본질적으로 죄가 됩니다. 기도를 하든, 찬송을 하든, 심지어 고아원을 돋는 선행을 하더라도 주체가 ‘나’라면 그것은 죽을 죄가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는데 그 말에는 현재 너희는 마귀 마음을 품고 있다는 반대의 미가 있습니다. 마귀 마음을 품으면 죽게 되고 마귀 마음을 품으면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 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되어라’ 하는 소립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을 바에는 성경적으로 믿어야, 이 소립니다. 성경적으로 믿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을 얻으려면 내 안의 마귀(나라는 의식)를 죽이고, 마귀 옥에 갇힌 하나님을 해방시켜 다시 내 삶의 주인공으로 모셔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가 되고 진정한 시천주(侍天主)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8면에 계속

살 수 있다고 전해져 왔으나, 무릉도원(선경)의 영적 씨앗을 심는 극락정토요 복된 땅이 아니던가? 불사생의 선도가 창성하는 운이 올 때에는 손진 계룡의 정도령이 출현한다고 전했다네. 인간들이 세상 재미와 행복을 즐기기 위하여 때 묻은 세속을 벗어나지 못하면 십승의 진리에 들어가지 못하여 마침내 죽음을 당하리라.

이기(理氣) 즉 하도낙서(양백)의 신령한 산이 되는 십승의 운수를 모르고 지리 십승의 여여 산을 찾는 것이 어찌 합당하겠는가? 지리산과 덕유산은 길지

가 아닌데 지혜로운 자가 어찌 이곳에 들어가라고 전했겠는가? 계룡산과 속리산도 길지가 아니며 절대로 꺼려야 할 곳이 또한 공주의 계룡산일세. 장차 이씨왕조가 끝날 때 이기(理氣)의 신령한 이치가 계룡으로 옮겨 드는데 이 계룡이란 무엇을 말함인가? 청학(靑鶴)이 계룡에 들어 알을 품는다는 것이 어찌 세상의 지리(地理)를 말함이겠는가?*

박명하 / 고서연구가
010-3912-5953
myunghpark23@naver.com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승리신문은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윤봉수 편집인 박태선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물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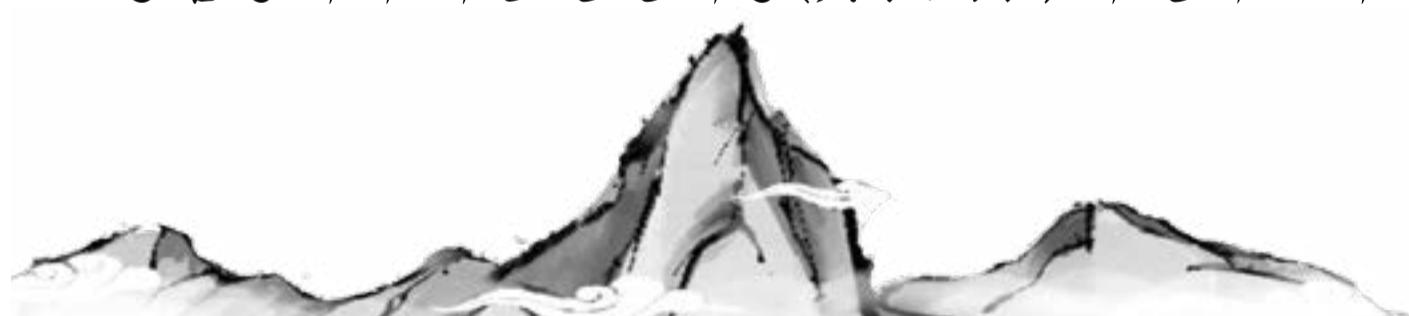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태양같이 밝은 신선의 운수가 장남장녀가 되는 손진계룡(巽震鷄龍)의 운수로다



운을 받아 죽음 가운데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태양같이 밝은 신선의 운수가 장남장녀가 되는 손진계룡(巽震鷄龍)의 운수로다. 손은 계(鷄=장녀=바람=음목)요 진은 龍=용=장남=우례=양목)이요. 손계진룡은 쌍목(음목양목)의 운수로서 이기(理氣)가 화합하여 하나가 되어 청림도사로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계룡정씨 정도령이니라.

큰 강을 건너감에 이로움이 있으니 목도(木道)가 이에 행함이니라. 곧 천운에 따라오는 신선의 도를 펼치는 장남장녀를 말함이니라. 부디 세상일을 생각하지 마라. 세속을 벗어나서 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소. 세속을 떠나 계룡에 든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선관 선녀가 짜를 지으니 궁궐을 신선이 되느니라. 계룡은 백석

이요 마귀를 박멸 소탕하는 무기(武器)인 고로 그 무기는 마지막에 오시는 정도령의 무기인 활(弓)이 되며 인생을 추수하는 영적인 나이 되느니라. 계룡, 청림도사, 장남장녀, 선관선녀는 궁궐을 정도령을 말하는 암호이다.

平沙三里福地 편사산리복지로서 非山非水傳 비산비수전했으며 人民避兵之方 인민피병지방이라 三災不入仙境 故 삼재불입선경고로 入王亂於朴 입임민야박이라고 十勝之人傳 십승자인전했으니 武陵桃源重桃處 무릉도원중도처가 淨土福地 정토복지아니던가 仙道昌運時來故 선도창운시래고로 鷄龍鄭氏傳 계룡정씨전했다네 人間滋味幸樂 인간자미행락으로 世脫俗離不入死 세탈속리불입사를